

ASAN POL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여론연구센터
아산 데일리 폴 조사결과 요약

| 남북 경제협력 및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2013년 5월 1일(수) ~ 5월 15일(수)

김지윤 연구위원

강충구 연구원

이의철 연구원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발표일 직전 3일,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예) 5월 4일 수치: 5월 1~3일 조사결과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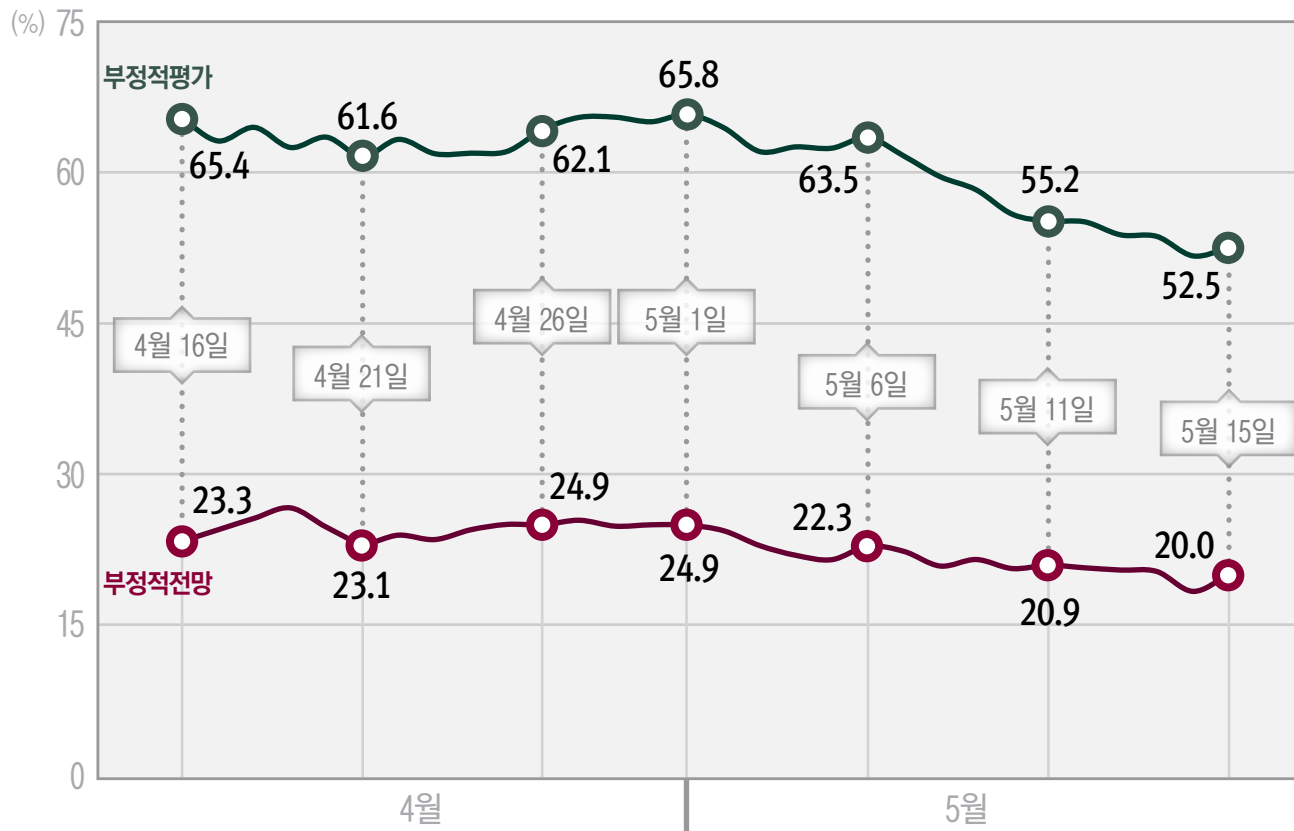
관련 문의 |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

- ▶ 국가안보평가 5월 1·2주차 평균: 58.2%
- ▶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긍정 26.8%, 부정 19.0%
- ▶ 남북 경협에 대한 견해: 필요하다 63.8%
- ▶ 경제협력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는가: 그렇다 43.8%, 그렇지 않다 49.7%
- ▶ 개성공단 중단 장기화의 책임: 북한 49.4%, 양측 모두 44.1%
- ▶ 남북경협에 가장 큰 영향 미친 요인은 북한 핵실험(40.7%)
- ▶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53.5%, '적극 나서지 않아도 된다' 40%
- ▶ 한국인 85.1%, 북한을 대화상대로 신뢰하지 않음
- ▶ 한·중 FTA, 국민 열 명 중 약 네 명만 인지하고 있음
- ▶ 한·중 FTA에 대한 찬반: 찬성 48%, 반대 27.1%

- 5월 3일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 완료
- 5월 4일 민주당 김한길 의원 신임 당대표 선출
 민주통합당, 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 5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방미
- 5월 7일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17조 3천억 규모
- 5월 8일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선언 채택
- 5월 9일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경질
-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성추행 파문 유감 표명
- 5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관련 회담 북한에 제의 지시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선생님께서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서는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사기간 5월 8일~10일

47.3%

현 상황 유지할 것

26.8%

긍정적으로 변할 것

19.0%

부정적으로 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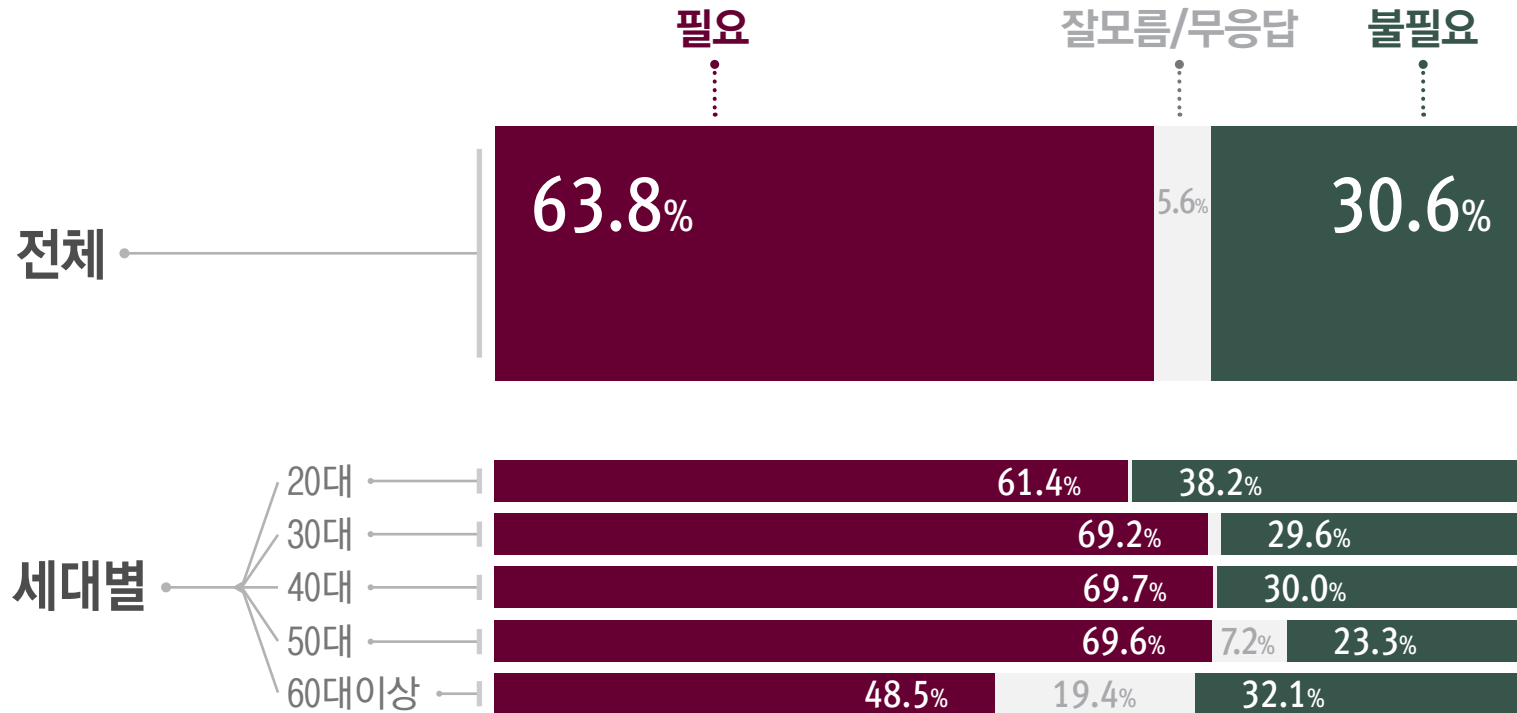
잘모름/무응답

4월 말까지 한국인의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 중반으로 높게 유지됐다. 5월 3일 개성공단 인원의 전원 철수 이후 북한의 도발 및 군사위협이 소강상태에 들어가며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다소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에서도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는 비율(26.8%)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19%)보다 높게 나왔다. 응답자의 47.3%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선생님께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8일~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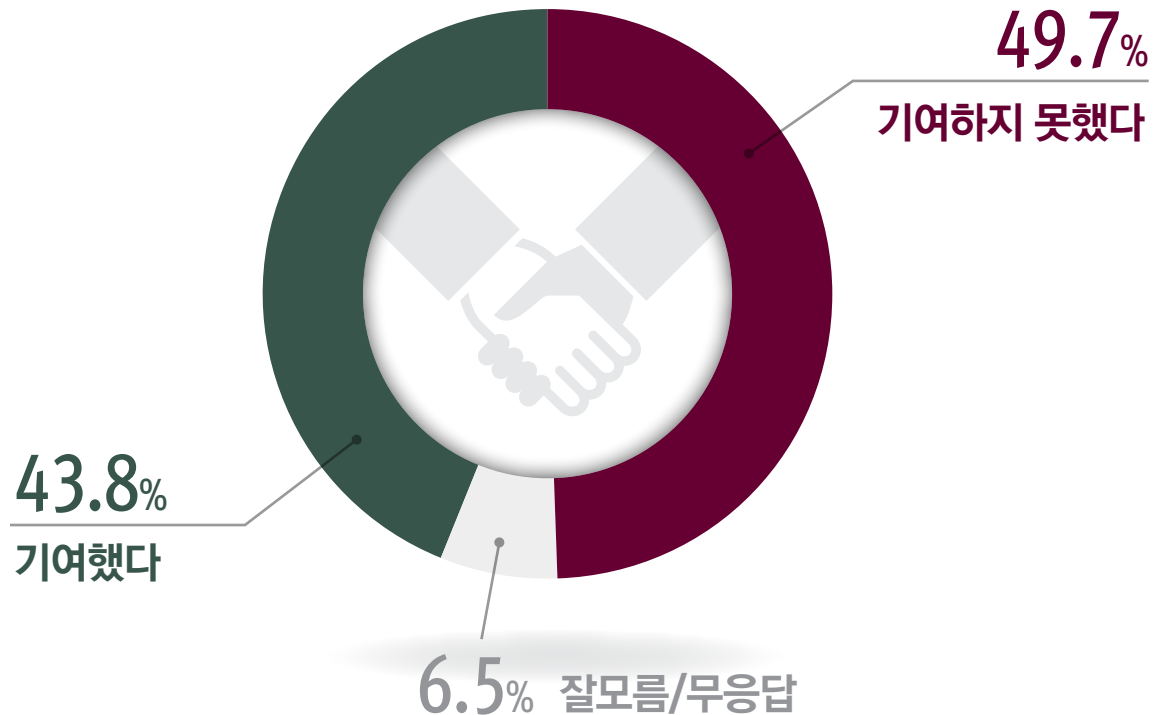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 시작된 4월 3일 이후 한 달이 지난 5월 3일 우리나라 인원의 전원 철수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63.8%의 응답자가 남북경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30대~50대는 약 70%가, 20대는 61.4%가 경협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60대 이상에서는 48.5%만이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60대 이상에서 입장을 유보한 비율(잘 모름/무응답)이 19.4%로 높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 약 한 달 쯤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이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조사기간 5월 8일~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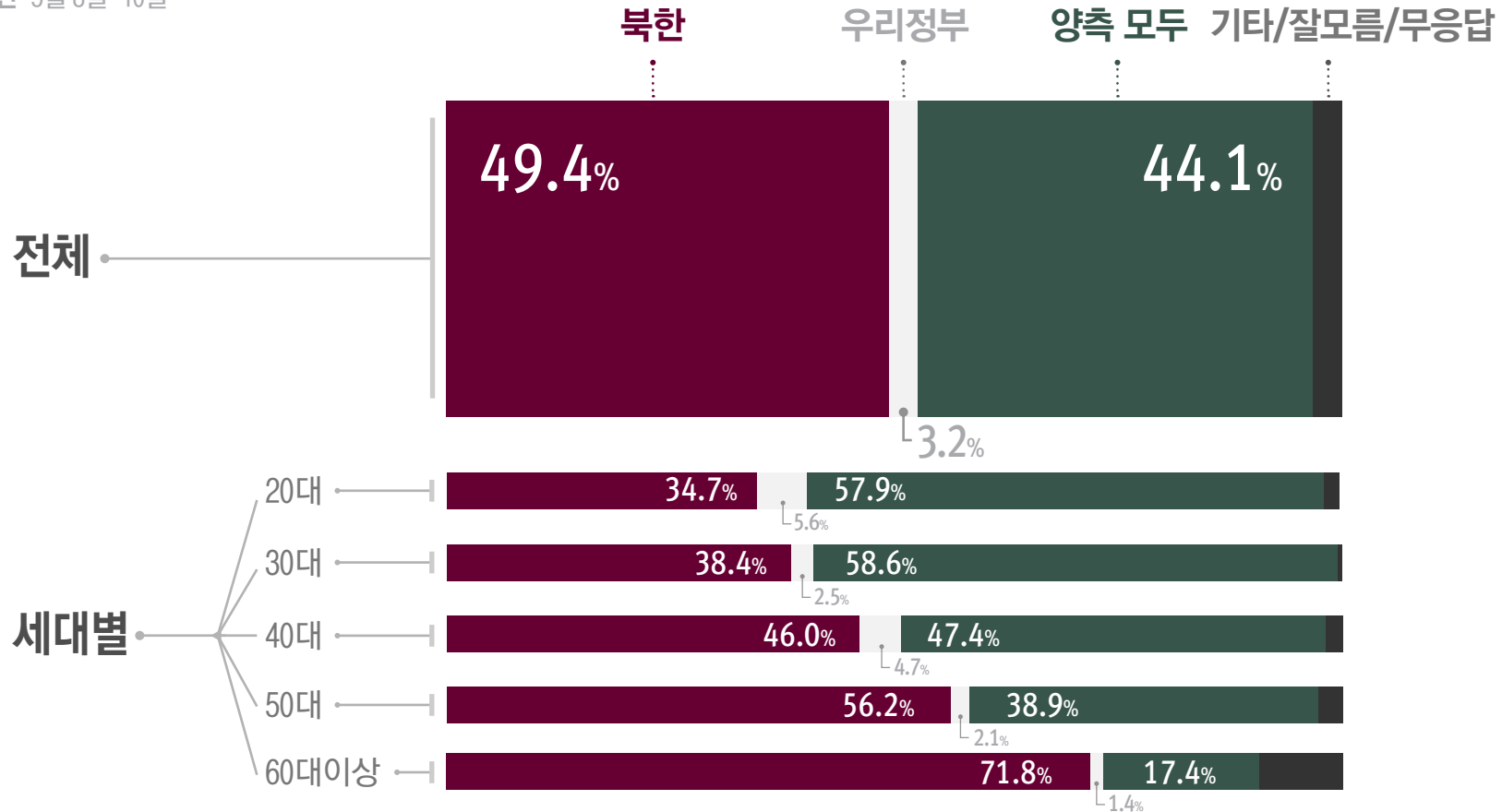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기여했다'(43.8%)와 '기여하지 못했다'(49.7%)는 의견이 엇갈렸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개성공단 마저 폐쇄되었기 때문에 과반의 국민은 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경협 노력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는 의견 역시 40%가 넘는 것으로 보아 여론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경협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볼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사기간 5월 8일~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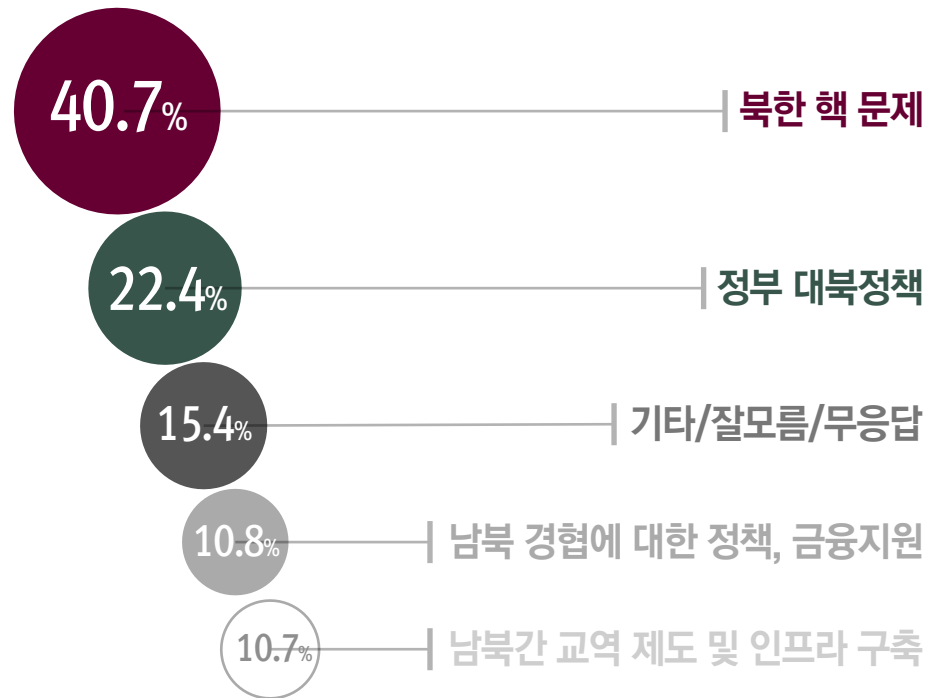


과반수의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중단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봤다. 북한이 대남 도발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직원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 결국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르게 했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다. 50대의 56.2%, 60대 이상의 71.8%가 개성공단 중단을 북한의 책임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는 비율 역시 44.1%로 높았다.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저연령층일수록 높았는데, 20대와 30대의 약 60%는 개성공단 중단의 장기화를 남북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했다.



선생님께서 그 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8일~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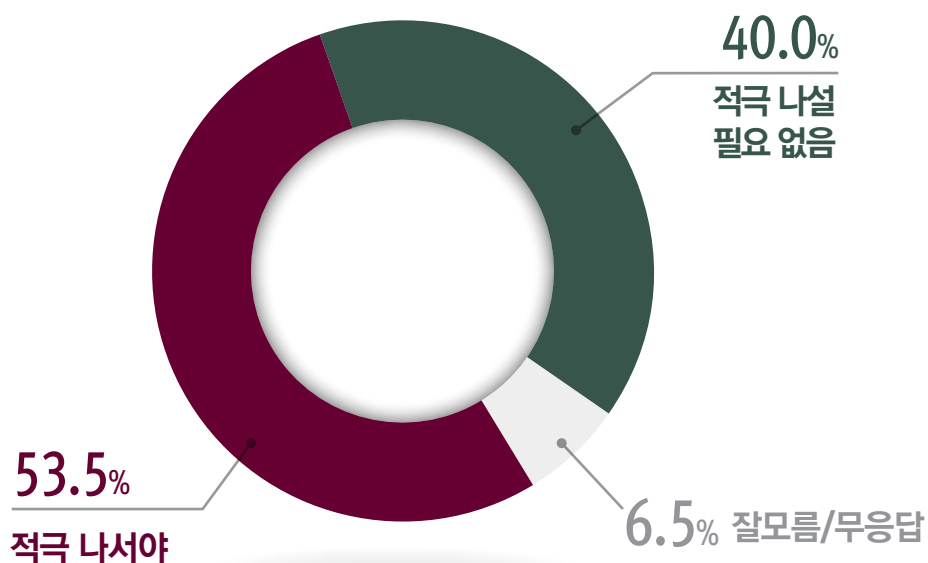


남북간 경제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북한 핵 문제(40.7%)가 꼽혔다. 북핵 문제가 남북 경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 것은 응답자들이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이러한 정세가 개성공단 사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정책(22.4%)은 남북경협에 있어 북핵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은 앞서 개성공단 중단 책임의 결과와 같이 우리 정부의 정책 역시 경협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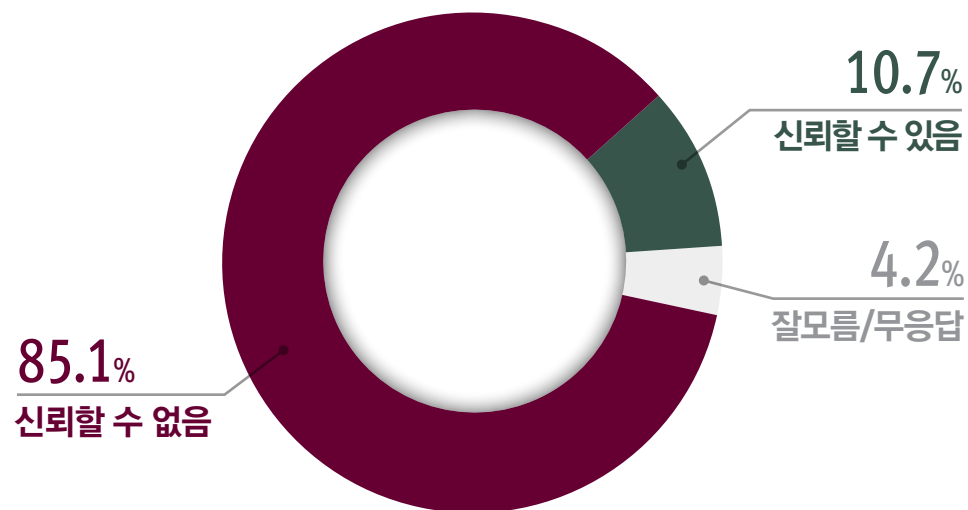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8일~10일



선생님께서서는 북한을 대화 상대로서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조사기간 5월 8일~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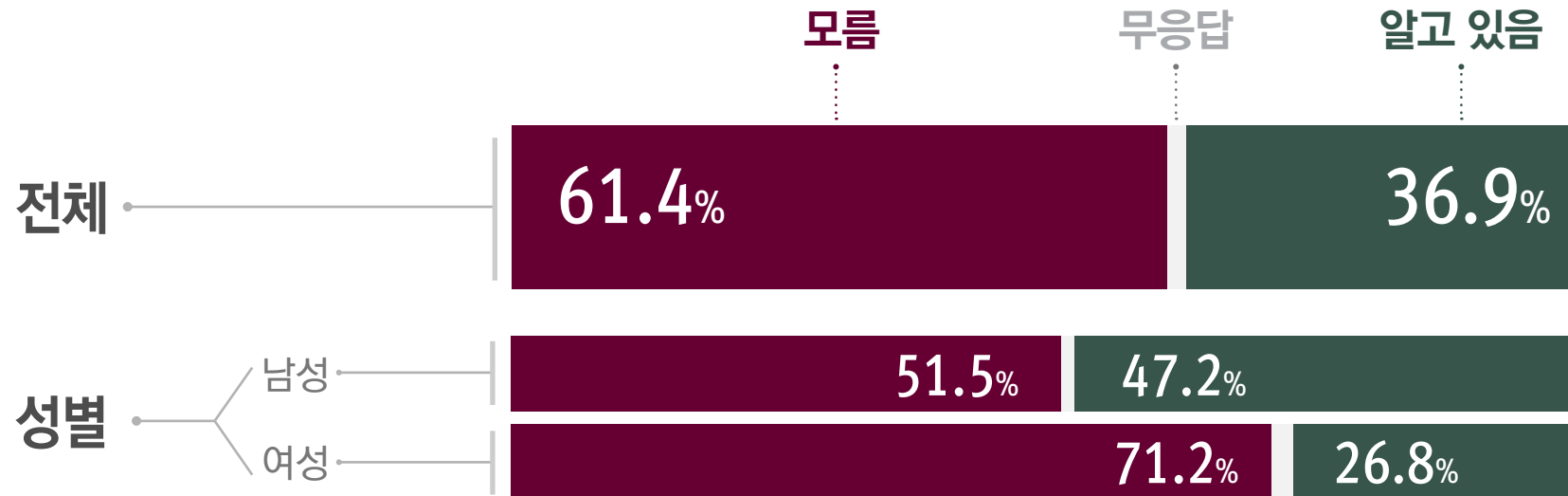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반은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봤다.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고 본 국민이 63.8%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적은 비율이었다.

한편, 북한을 대화 상대로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5.1%의 응답자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수가 북한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선생님께서서는 한중 FTA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사기간 4월 29일 ~ 5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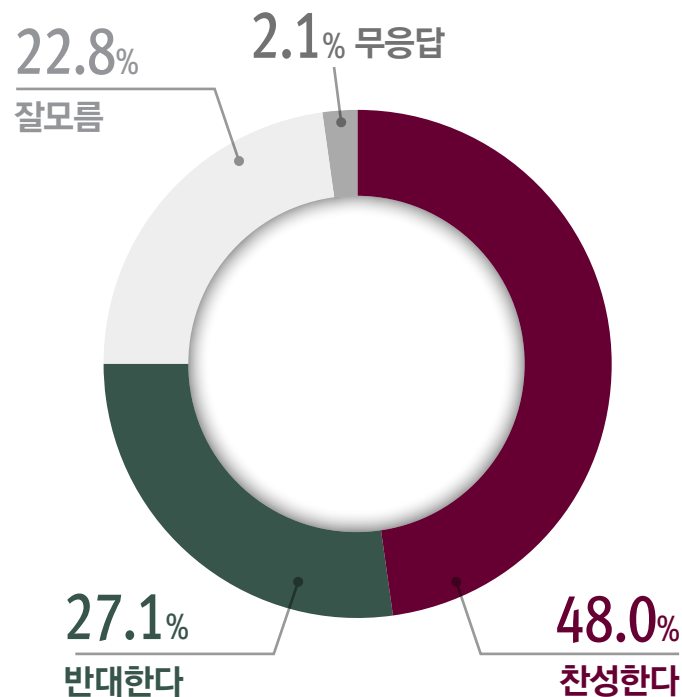


지난 2012년 5월 한·중 FTA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현재 한·중 FTA에 대해 알고있는 국민의 비율은 채 40%가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47.2%가, 여성의 경우 26.8%만이 한·중 FTA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한·미 FTA에 대해 알고있는 한국인의 비율이 56.8%로 나타났다. ¹⁾한·미 FTA에 비해, 중국과의 FTA가 덜 알려진 것은 이미 발효된 한·미 FTA와는 달리 한·중 FTA의 경우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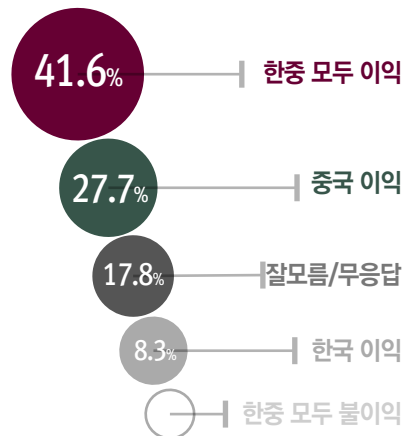


선생님께서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FTA (자유무역 협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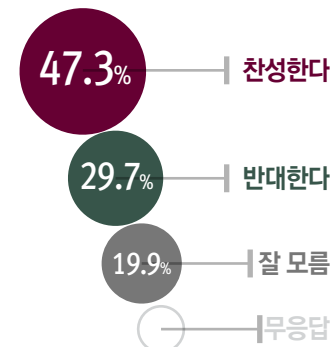
조사기간 4월 29일 ~ 5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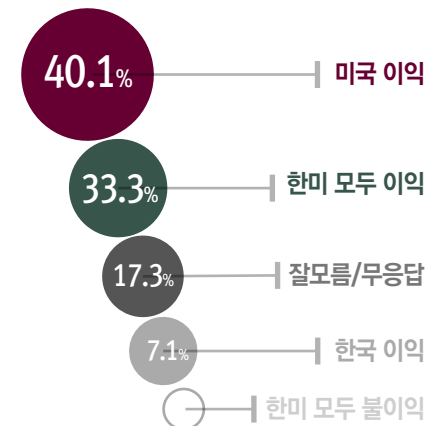
• 한중 FTA할 경우, 이익이 되는 국가



• 한미 FTA에 대한 찬반



• 한미 FTA할 경우, 이익이 되는 국가



한·중 FTA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이 48%, 반대가 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에 대한 찬반은 한·중 FTA 발효 후인 작년 10월에 수행한 한·중 FTA 찬반 입장 조사의 결과와 매우 유사했다. 단, FTA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중 FTA에 대하여는 41.6%가 ‘한·중 모두 이익’, 27.7%가 ‘중국이 이익’ 일 것으로 봤으나, 한·미 FTA에 대해서는 40.1%가 ‘미국이 이익’, 33.3%가 ‘한·미 모두 이익’ 일 것으로 봤다. 국내 여론은 한·중 FTA가 한·미 FTA에 비해 양국에 더 호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는 FTA를 통해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